

5/22 2차 모임자료

“EBS 당신의 문해력”

- 글쓰기 능력 향상 및 자주 틀리는 맞춤법 확인으로 공문서 작성 능력 향상 -

⚐ 맞춤법 Test(단어, 띄어쓰기 틀린 곳 찾기) 활동자료

<1번>

연말이라 정리해야 할 서류가 많아

한참 바쁜 데 김사장이 또 다시 나를 호출했다. 오늘 만해도 벌써 다섯번째다. 하지만 그와 나는 갑을 관계. 열 받아 봤자 나만 손해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마지 못해 사장실에 들어서니 그가 자기 몸집 보다 큰 안락 의자에 파묻히다시피 앉아 있었다. 눈에 띠게 줄어든 머리숱, 광대가 드러날 만큼 움푹 패인 볼때기, 벌름거리는 콧망울, 눈썹에 닿을듯이 찢어진 눈꼬리, 두툼한 귓볼, 눈밑의 사마귀까지 도무지 예순을 갓 넘긴 나이로 볼 수 없을만큼 노쇄한 그를 내려다 보며 '이번엔 또 무슨 트집을 잡으려나' 하고 생각하는 순간, 내 눈 앞으로 서류 뭉치가 날아 들었다.

"어이, 이부장 아니 이씨. 이 손익 계산서 살펴 봤나? 수익율이 이게 뭔가? 도대체 자네가 하는 일이 뭔가? 그러면서도 월급은 따박따박 받아 가니 직장인이 상팔자구만."

김사장의 이런 험한 말에는 이골이 난만큼 귓등으로 흘러듣는 게 상책이다. 그리고 나도 그에 질세라 험한 말을 쏟아낸다. 물론 마음 속으로만.

'막돼 먹은 놈, 정말 어이 없네. 네가 말도 안되는 프로젝트를 밀어부쳐서 이 사단이 난 건데 되려 큰 소리 칠 수도 있고 사장이 좋긴 좋구만.'

<2번>

철수 : 길동이 얘기 들었니? 이번 취직 시험도 잘 안 됐나 봐. ①

영희 : 그러게. 어제 잠깐 만났는데 얼굴이 영 안 됐더라. ② 학교 다닐 때는 공부 잘 했는데. ③

철수 : 분야를 바꿔서 새로 공부한 지 세 달 만에 그 정도 점수를 받은 것도 잘 한 거야. ④

영희 : 그래도 열심히 공부했는데 속상해하는 걸 보니 마음이 안 됐더라고. ⑤

철수 : 단번에 붙었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잖아. 길동이도 이번은 워밍업으로 생각하고 다음 시험에 잘 되든 ⑥ 못 되든 ⑦ 되든 안 되든 ⑧ 끝까지 해보겠대.

<1번 해답>----------

연말이라 정리해야 할 서류가 많아 (1)[한참→한창] (2)[바쁜 데→바쁜데] (3)[김사장→김 사장]이 (4)[또 다시→또다시] 나를 호출했다. (5)[오늘 만해도→오늘만 해도] 벌써 (6)[다섯번째→다섯 번째]다. 하지만 그와 나는 갑을 관계. (7)[열 받아→열받아] 봤자 나만 손해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8)[마지 못해→마지못해] 사장실에 들어서니 그가 자기 (9)[몸집 보다→몸집보다] 큰 (10)[안락 의자→안락의자]에 파묻히다시피 앉아 있었다. (11)[눈에 띠게→눈에 띄게] 줄어든 머리숱, (12)[광대→광대뼈]가 드러날 만큼 움푹 (13)[패인→팬] 볼때기, 벌름거리는 (14)[콧망울→콧방울], 눈썹에 (15)[닿을듯이→닿을 듯이] 찢어진 눈꼬리, 두툼한 (16)[귓볼→귓불], (17)[눈밑→눈 밑]의 사마귀까지 도무지 예순을 갓 넘긴 나이로 볼 수 (18)[없을만큼→없을 만큼] (19)[노쇄한→노쇠한] 그를 (20)[내려다 보며→내려다보며] 이번엔 또 무슨 트집을 잡으려나 하고 생각하는 순간, 내 (21)[눈 앞→눈앞]으로 서류 뭉치가 (22)[날아 들었다→날아들었다].

"어이, (23)[이부장→이 부장] 아니 (24)[이씨→이 씨]. 이 손익 계산서 (25)[살펴 봤나→살펴봤나]? (26)[수익율→수익률]이 이게 뭔가? 도대체 자네가 하는 일이 뭔가? 그러면서도 월급은 (27)[따박따박→또박또박] 받아 가니 직장인이 (28)[상팔자구만→상팔자구먼]."

(29)[김사장→김 사장]의 이런 험한 말에는 이골이 (30)[난만큼→난 만큼] 귓등으로 (31)[흘러듣는→흘려듣는] 게 상책이다. 그리고 나도 그에 질세라 험한 말을 쏟아낸다. 물론 (32)[마음 속→마음속]으로만.

'(33)[막돼 먹은→막돼먹은] 놈, 정말 (34)[어이 없네→어이없네]. 네가 말도 (35)[안되는→안 되는] 프로젝트를 (36)[밀어부쳐서→밀어붙여서] 이 (37)[사단→사달]이 난 건데 (38)[되려→되레] (39)[큰 소리 칠→큰소리칠] 수도 있고 사장이 좋긴 (40)[좋구만→좋구먼].

<2번 해답>----------

① 안됐나 봐: 동사「1」일, 현상, 물건 따위가 좋게 이루어지지 않다.
② 안됐더라: 형용사「2」근심이나 병 따위로 얼굴이 많이 상하다.
③ 잘했는데, ④ 잘한 거야: 동사「2」좋고 훌륭하게 하다.
⑤ 안됐더라고: 형용사「1」섭섭하거나 가엾어 마음이 언짢다.
⑥ 잘되든: 동사「1」일, 현상, 물건 따위가 썩 좋게 이루어지다.
⑦ 못되든: 형용사「2」일이 뜻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⑧ 안 되든: 안(부사) 되다(동사)

<해설>----------

(1) '한참'과 '한창'을 구별해 쓰는 방법
'한참'은 '시간이 상당히 지나는 동안' 또는 '상당히 오래 진행되고 있을 때'라는 뜻이고, '한창'은 '가장 활기 있게 진행되고 있을 때'라는 뜻이다. 이를 구별하는 팁이 있다. 그 자리에 '오래'를 넣어 문맥이 자연스러우면 '한참'을, '가장'으로 대체할 수 있으면 '한창'을 쓰는 것이 대부분 맞다. 또, 시간을 나타내는 '~ 동안', '~ 만(에)'과 함께 써서 말이 되면 '한참'을, 말이 안 될 경우에는 '한창'을 쓰면 대부분 맞다. 위 예문을 살펴보면 '정리해야 할 서류가 많아 오래 바쁜데'보다 '정리해야 할 서류가 많아 가장 바쁜데'가 자연스럽다. 또, '정리해야 할 서류가 많아 한참 동안(한참 만에) 바쁜데'라고 쓰면 왠지 어색하다. 그렇다면 이 문장에서는 '한창'을 써야 맞는 것이다.

(7) '-받다'는 (몇몇 명사 뒤에 붙어) '피동'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예: 미움받다, 사랑받다, 강요받다, 배려받다, 고통받다, 눈총받다, 상처받다 등. 단, 추상적인 단어 뒤에 붙으므로 할인 받다, 선물 받다 등은 띄어 써야 한다.

(12) '광대'는 '얼굴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며, '광대뼈'는 '뺨의 튀어나온 부분을 이루는 네모꼴의 뼈'이므로 구별해 써야 한다.

(20) '내려다보다'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올려다보다, 쳐다보다, 내다보다, 들여다보다, 바라보다(바라다보다), 넘겨보다(넘겨다보다), 건너보다(건너다보다), 굽어보다, 넘어다보다, 돌아보다, 거들떠보다'도 마찬가지다.

(26) 한자 '률'은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질 때만 '율'로 적고 나머지는 '률'로 적는다. 예: 선율, 의존율, 참가율, 비율, 생존율, 시청률, 출석률 등. '렬'도 마찬가지다.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질 때만 '열'로 적고 나머지는 '렬'로 적는다. 예: 나열, 분열, 선열, 진열,

(29) '한글 맞춤법' 제48항을 보면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성이 홍, 이름이 길동이라면 홍길동, 홍길동 씨, 홍 씨, 홍길동 님, 길동 님, 홍 사장, 홍 사장님, 홍 선생, 홍 박사 등으로 써야 한다. 그런데 '김사장'이라고 쓰면 김(성)-사장(이름)이고, 이 사람이 사장이라며 '김사장 사장'이 되어 버린다.

(35) '안 되다'는 부사 '안'('아니'의 준말)이 동사 '되다'를 수식하는 구성으로 '사탕을 많이 먹으면 안 돼', '너와 나는 너무 달라서 안 돼', '되든 안 되든 해보자'처럼 금지, 부정, 이루어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예문에서 '말이 안 되다'는 부정의 의미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한편, 붙여 써야 하는 '안되다'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1회 칼럼(잘하다, 띄어 써야 할까?)을 참고하기 바란다.

(37) 흔히 '사단이 났다'라고 쓰는데, 이는 '사달이 났다'의 잘못된 표현이다. '사단'은 '사건의 단서. 또는 일의 실마리'라는 뜻이고, '사달'은 '사고나 탈'이라는 뜻이다.

🏳 자주 틀리는 맞춤법 참고자료

[작가들도 자주 틀리는 맞춤법] 본말을 알아야 준말을 잘못 쓰지 않는다

1) 글자는 같은데 품사가 달라 헷갈리는 <데, 만, 만큼, 뿐, 대로, 듯, 보다, 지>
품사(品詞)란 '단어를 기능, 형태, 의미에 따라 나눈 갈래'이며,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 문법에서는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의 아홉 가지로 분류한다. 그런데 글자는 같고 품사가 달라 띄어 써야 할지, 붙여 써야 할지 헷갈리는 낱말이 많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① '데'가 '그 친구는 아들만 둘이데'처럼 '과거에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을 현재의 말하는 장면에 그대로 옮겨 와서 말함'을 나타날 때는 종결 어미이므로 붙여 쓰지만, '의지할 데 없는 사람, 그 책을 다 읽는 데 삼 일이 걸렸다, 머리 아픈 데 먹는 약'처럼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 '곳'이나 '장소', '일'이나 '것', '경우'의 뜻으로 쓰일 때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한편, 비슷한 모양새의 'ㄴ데'는 '여기가 우리 고향인데 인심도 경치도 좋다'처럼 연결 어미, '나무가 정말 큰데.'나 '그 옷은 얼만데?'처럼 종결 어미로 쓰이며 붙여 쓴다.

설명이 길었지만 첫 번째 '-데'는 흔히 쓰지 않으므로 건너뛰고, '그녀는 똑똑한 데다가 마음씨도 곱다'(의존 명사 '데')와 '그녀는 똑똑한데 마음씨는 나쁘다'(연결 어미 '-ㄴ데')를 구별해 쓸 줄 안다면 확실히 이해한 것이다. 팁을 알려주자면 '데'를 '곳(에), 것(에), 경우(에)'로 바꿔 써도 된다면 띄어 쓰고(예: 의지할 곳, 읽는 것에, 아픈 경우에, 똑똑한 것에다가), 안 될 경우에는 붙여 쓴다.

② '만'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처럼 체언에 붙어서 한정 또는 비교의 뜻으로 쓰일 때는 조사이므로 붙여 쓰지만 '떠난 지 사흘 만에 돌아왔다, 세 번 만에 시험에 합격했다'와 같이 시간의 경과나 횟수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③ '만큼'이 '나도 너만큼 잘났다, 덩치가 황소만큼 크다'처럼 체언 뒤에 붙어 '앞말과 비슷한 정도로'라는 뜻을 나타내면 조사이므로 붙여 쓰지만 '놀 만큼 놀았다, 애쓴 만큼 얻는다'와 같이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 쓰일 때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④ '뿐'이 '내 사랑은 당신뿐이다'처럼 체언 뒤에 붙어서 한정의 뜻을 나타내면 조사로 다루어 붙여 쓰지만 '말없이 밥만 먹을 뿐이다'와 같이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⑤ '대로'가 '네 멋대로 해라'처럼 체언 뒤에 붙어 '그와 같이'라는 뜻을 나타내면 조사이므로 붙여 쓰지만 '아는 대로 말한다, 약속한 대로 하세요'와 같이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 쓰일 때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⑥ '듯'이 '구름에 달이 흘러가듯'처럼 용언의 어간 뒤에 쓰일 때에는 어미이므로 붙여 쓰지만, '그가 먹은 듯'과 같이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 쓰일 경우에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⑦ '보다'가 '그는 나보다 두 살 위이다'처럼 체언 뒤에 붙어 '~에 비해서'의 뜻을 나타내면 조사이므로 붙여 쓰지만 '보다 빠르게 뛰다'와 같이 용언 또는 다른 말 앞에 놓여 '어떤 수준에 비하여 한층 더'의 의미로 쓰일 때는 부사이므로 띄어 쓴다.

⑧ '지'가 '집이 큰지 작은지 모르겠다'처럼 '어미 -(으)ㄴ지, -ㄹ지'의 일부로 쓰일 때는 붙여 쓰지만 '그가 떠난 지 한 달이 지났다'와 같이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2) 본말을 알아야 준말을 잘못 쓰지 않는다

의외로 작가들도 많이 틀리는 게 준말이다. 특히 ('눈에'와 함께 쓰여) 남보다 훨씬 두드러지다는 뜻을 가진 '뜨이다'의 준말은 '띄다'인데 '눈에 띠는, 눈에 띠게' 등으로 잘못 쓰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눈에 띄다'에 익숙한 사람들은 '형태를 띄다, 미소를 띄다, 붉은빛을 띄다'처럼 '띠다'를 써야 할 자리에 '띄다'를 잘못 쓰기도 한다.

또, '되려'도 자주 쓰는데, 이는 '도리어'의 준말인 '되레'를 '오히려'의 준말인 '외려'와 착각해 잘못 쓰는 경우다.

한편, 동사 '되다'를 활용할 때 '되'를 써야 할지 '돼'를 써야 할지 헷갈린다는 사람도 많은데, '돼'가 '되어'의 준말이라는 걸 알면 잘못 쓸 일이 없다. 즉, '되다'의 어간 '되-'에 '-어/-었-/-어서' 등이 붙어 활용할 때는 '되-'와 '-어'를 축약하여 '돼'로 적고(돼/됐다/돼서), 자음 어미가 붙어 활용할 때는 축약되지 않으므로 '되-'로 적는다(되고/되니/되면). 그리고 이를 맞게 썼는지 체크하려면 '되어'를 넣어보면 된다. 예를 들어 '의사가 되어고 싶다'는 말이 안 되므로 '되고'를 써야 하고, '의사가 되어서 봉사하고 싶다'는 말이 되므로 '돼서'로 줄여 쓸 수 있다.

3) 안됐지만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돼

'안되다'는 동사와 형용사로 나뉜다. 동사로 쓰일 때는 '「1」 일, 현상, 물건 따위가 좋게 이루어지지 않다.「2」 사람이 훌륭하게 되지 못하다.「3」 일정한 수준이나 정도에 이르지 못하다'라는 의미이고, 형용사로 쓰일 때는 '「1」 섭섭하거나 가엾어 마음이 언짢다.「2」 근심이나 병 따위로 얼굴이 많이 상하다'라는 의미다.

'안 되다'는 부사 '안'('아니'의 준말)이 동사 '되다'를 수식하는 구성으로 '사탕을 많이 먹으면 안 돼', '너와 나는 너무 달라서 결혼은 안 돼', '되든 안 되든 해보자'처럼 금지, 부정, 이루어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공부가 잘 안돼'와 '여기서는 공부하면 안 돼'는 전혀 다른 의미다. 전자는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뜻이고, 후자는 공부가 금지되었다는 뜻이다. '안되다/안 되다'를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감정을 드러내는 게 안돼'와 '감정을 드러내서는(도) 안 돼'를 구분할 수 있다면 이해한 것이다. 내 경험에 따른 팁을 하나 알려주자면 일상적인 대화나 문장 속에서 '안된다'보다 '안 된다'가 더 많이 쓰인다.

4) 잘돼야 할 텐데 말만 하고 못되면 남 탓만 하는데 잘될 리가 있나

'잘되다'는 '안되다'의 반대말이며, '농사가 잘되다, 공부가 잘되다, 네가 잘되기를 바란다'처럼 동사로만 쓰인다. 간혹 '시험에 떨어졌는데 친구가 잘됐다고 약을 올렸다'처럼 '(반어적으로) 결과가 좋지 아니하게 되다'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그러면 '잘 되다'는 어떨 때 쓸까? 이를 이해하려면 부사 '잘'을 알아야 한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을 찾아보면 무려 14가지 풀이가 있는데, '마음을 잘 써야 복을 받는다', '자식을 모두 잘 키웠다', '환자를 잘 치료하다', '옷이 잘 맞다'에서처럼 '옳고 바르게, 좋고 훌륭하게, 익숙하고 능란하게, 아주 적절하게' 등 주로 긍정적이고 좋은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잘되다'도 긍정적이고 좋은 의미일 때 쓴다. 그런데 '이 기계는 조그만 충격에도 파손이 잘된다'라고 쓰면 어떨까? 파손이 잘되는 게 좋은 걸까? 여기서는 '버릇으로 자주, 예사롭거나 쉽게'의 뜻인 부사 '잘'로 쓰였기에 '파손이 잘 된다'로 띄어 써야 한다. '안되다/안 되다'와 달리 '잘되다/잘 되다'는 '잘되다'가 더 많이 쓰인다.

'못되다'는 형용사이며, '「1」 성질이나 품행 따위가 좋지 않거나 고약하다.(예: 친구에게 못되게 굴면 안 돼) 「2」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예: 그 일이 못된 게 남의 탓이겠어)'는 뜻이 있다.

'못 되다'는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을 할 수 없다거나 상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못'이 '되다'를 수식하므로 '배우가 되고 싶었지만 못 됐다'처럼 쓸 수 있다. 여기서 드는 의문 하나! 2번 뜻의 못되다와 뭔가 다르지? 차이가 있다. 못되다는 어느 정도는 이루었지만 원하는 만큼 되지 않은 것이고, 못 되다는 아예, 전혀 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것만 구분한다면 틀릴 일은 없을 것이다.

5) 잘해도 못해도 괜찮아, 시도조차 안 해서 못 한 게 문제지

'잘하다'는 동사이며 '「1」 옳고 바르게 하다. 「2」 좋고 훌륭하게 하다. 「3」 익숙하고 능란하게 하다 「4」 버릇으로 자주 하다. 「5」 음식 따위를 즐겨 먹다' 외에도 '친절히 성의껏 대하다'(예: 부모에게 잘하다), '운이나 여건 따위가 좋으면, 여차하면'(예: 잘하면 올해도 풍년이 들겠다), '넉넉잡아서, 고작'(예: 잘해야 1만 원 정도 받겠다)의 뜻도 있으므로 거의 모든 맥락에 쓸 수 있다. 물론 '잘 하다'를 쓰는 맥락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한 단어로 굳어진 '잘하다'를 써서 표현할 수 있는 맥락이 대부분이므로 '잘 하다'는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될 것이다.

'못하다'는 '어떤 일을 일정한 수준에 못 미치게 하거나, 그 일을 할 능력이 없다'는 뜻(예: 노래를 못하다)의 동사, '비교 대상에 미치지 아니하다'(예: 건강이 젊은 시절만 못하다)나 '아무리 적게 잡아도'(예: 아무리 못해도 스무 명은 올 것이다) 뜻의 형용사로 쓰인다. 또, '~지 못하다' 구성으로 앞말이 뜻하는 행동에 대하여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것을 이룰 능력이

없음을 나타내는 보조 동사(예: 배가 아파 밥을 먹지 못하다)나 보조 형용사(예: 아름답지 못하다)로 쓰인다. '못 하다'는 먼저 살펴본 '못 되다'와 같은 구성이다.

복잡해 보이지만 '잘하다'의 반대 개념이라면 '못하다'로 붙여 쓰고, 아예 하지 못한다는 맥락이라면 '못 하다'로 띄어 쓰고, '~지 못하다' 구성이면 무조건 붙여 쓴다고 생각하면 된다. '과제를 못했어/못 했어'를 예로 들면 과제를 잘하지 못한 것이라면 '과제를 못했어'로 써야 하고, 과제를 아예 하지 못한 것이라면 '과제를 못 했어'로 띄어 쓰고, '과제를 하지 못했어'는 붙여 쓴다. 그리고 '~지 못하다' 구성에서 '못하다/못 하다' 중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는 문맥을 보고 파악해야 한다.(예: '배가 아파 밥을 많이 먹지 못하다' → 못하다/'배가 아파 밥을 아예 먹지 못하다' → 못 하다)

'안하다/안 하다'는 어떨까? '안하다'는 틀린 말이며 무조건 '안 하다'로 써야 한다. 간혹 '아니하다'의 준말을 '안하다'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하다의 준말은 '않다'이고 '어떤 행동을 안 하다'라는 뜻이다. 따라서 '밥을 안 하다' 또는 '밥을 않다', '밥을 하지 않다'로 써야 한다.

학습동아리 "띵크북(Think Book)"



6/19 3차 모임자료

"2030-2050 뉴비즈니스 모델 51"

- 2030 교육 환경 예측 기반, 미래 업무 적응 역량 향상 방안 논의 -

⚐ 현대사회에서 자신의 역량개발 방안 고찰 中 푸드테크 & 미각제어 디바이스

[곤충식품의 미래]

1. 영양 가치: 곤충은 단백질, 철, 아미노산, 오메가-3 지방산 등 다양한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기는 고기와 유사한 단백질 함량을 가지고 있으며,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생산될 수 있습니다.

2. 지속 가능성: 곤충은 사료, 물, 공간 등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온실 가스 배출이 적은 환경 친화적인 방식으로 생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곤충은 생산 주기가 짧고 번식력이 높아 빠른 속도로 번식하고 성장할 수 있어 식량 공급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 다양성과 혁신: 곤충은 다양한 종류와 형태로 존재하며, 다양한 곤충식품 제품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뚜기 스낵, 커리 벌레 햄버거, 멜로우 웜 크리켓 파우더 등의 제품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혁신적인 제품은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식품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문화적인 측면: 몇몇 국가에서는 곤충을 식품으로 소비하는 문화가 있으며, 곤충식품은 그들의 전통적인 식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국에서는 메뚜기, 등에 대한 다양한 요리가 있으며, 아프리카의 일부 지역에서는 꿀벌 유충을 포함한 곤충이 식품 자원으로 활용됩니다.

[곤충식품관련 회사]

Entomo Farms (Kraig Biocraft Laboratories Inc.): 곤충 기반 단백질 제품을 생산하는 푸드테크 기업으로, 미국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Protifarm: 유럽의 곤충식품 생산 기업으로, 벨기에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Ynsect: 프랑스의 푸드테크 기업으로, 곤충 기반 단백질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Beyond Meat Inc.: 대체 식품 기업으로 유명한 Beyond Meat는 곤충식품 외에도 식물 기반의 육류 대체품을 개발 및 생산하고 있습니다.
Eat Grub Ltd: 영국의 곤충식품 회사로, 멜로우 웜과 같은 곤충을 사용하여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Chirp: 미국의 곤충식품 기업으로, 멜로우 웜과 같은 곤충을 사용하여 스낵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분자 요리학의 미래]

1. 맞춤형 식품: 분자 요리학은 개인의 맞춤형 식품 제작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유전자 정보나 건강 상태에 기반하여 영양소 조절이나 알레르기 유발 성분 제거 등을 고려한 맞춤형 식품이 개발될 수 있습니다.

2. 식재료 혁신: 분자 요리학은 식재료의 혁신적인 활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물 기반의 대체 육류 제품이나 해조류의 활용, 식물 성장 조건의 최적화를 통한 향상된 식재료 생산 등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3. 향과 맛의 조절: 분자 요리학은 향과 맛에 대한 연구와 이해를 통해 식품의 맛을

개선하고 다채롭게 조절하는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향료와 향신료의 개발, 특정 맛 감지를 담당하는 맛포톤 수용체의 이해 등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4. 식품 안전성 및 지속 가능성: 분자 요리학은 식품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품 유해 물질의 탐지와 제거, 식품의 유통 기간 연장을 위한 방법, 식품 쓰레기의 최소화를 위한 기술 등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5. 가상 현실과 첨단 기술의 융합: 분자 요리학은 가상 현실과 첨단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혁신적인 요리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상 현실을 활용한 식품 시뮬레이션, 첨단 로봇 기술을 이용한 자동화된 조리 과정 등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분자 요리학 관련 회사]

1. Modernist Cuisine LLC: 분자 요리와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혁신적인 요리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과학적인 연구와 실험을 통해 요리 기술을 발전시키고, 책 출판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2. Cuisine Solutions: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조리된 식품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로, 저온 조리 및 소스 분자학 등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3. Texturas: 분자 요리를 위한 식품 첨가제 및 재료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스페인의 회사입니다. 분자 요리의 창의적인 효과를 위해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4. Sosa Ingredients: 식품과학을 바탕으로 한 혁신적인 재료 및 식품 솔루션을 개발하는 회사로, 분자 요리에 필요한 다양한 성분과 첨가제를 제공합니다.

5. Molecule-R: 분자 요리를 집에서 즐길 수 있도록 분자 요리 키트와 도구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분자 요리를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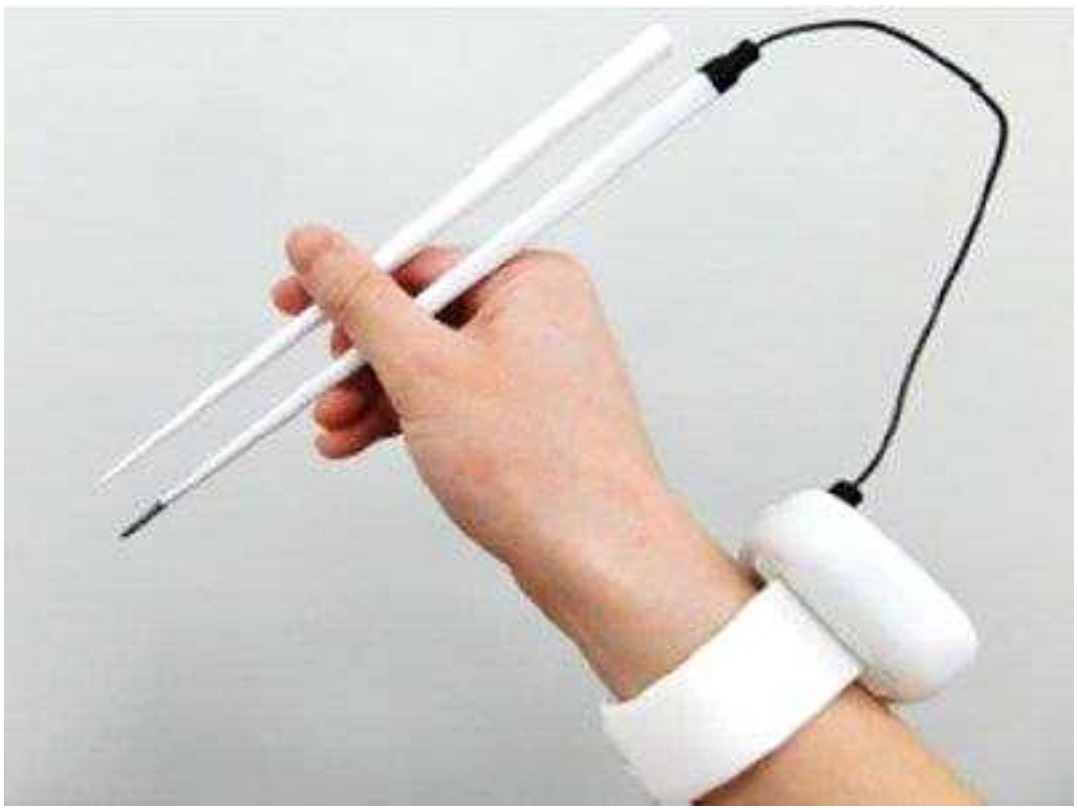
Michel/Fabian 숟가락 Goute (음식을 맛있게 하는 숟가락)



미야시타 교수가 발명한 TTTV, 103만원



짠맛 젓가락



[미각 제어 디바이스의 미래]

1. 맞춤형 식품 체험: 미각 제어 디바이스는 개인의 맛 선호도와 식이 요구에 맞추어 음식의 맛과 향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취향과 영양 요구에 맞춘 맞춤형 식품 체험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의료 및 치료용途: 미각 제어 디바이스는 의료 및 치료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환자들에게 식사 중에 맛을 강화시켜 식욕을 자극하거나, 특정 맛과 향을 조절하여 의약품의 복용을 도와주는 등의 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가상 현실과 결합: 가상 현실(Virtual Reality, VR)과 미각 제어 디바이스를 결합하여 현실적이고 고도로 맞춤화된 음식 체험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상 현실 시뮬레이션과 함께 음식의 맛과 향을 조절하여 사용자에게 현실적인 식사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음식 산업 혁신: 미각 제어 디바이스는 음식 산업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식품 회사들은 소비자들의 맞춤형 맛과 향을 제공하기 위해 미각 제어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음식 교육 및 연구: 미각 제어 디바이스는 음식 교육 및 연구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맛과 향을 체험하고, 음식 성분의 변화가 맛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등의 용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7/24 4차 모임자료

"들숨의 긍정, 날숨에 용기"

저자: 지나영

-나를 바꾸는 긍정의 힘-

⚐ 도서 中 나를 바꾸는 긍정적인 방법

1. 나를 바꾸는 긍정적인 마음
2. 완벽해지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3. 내 모습 그대로 행복한 삶
나의 다양한 면과 제 모습 그대로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과 만날 때 가장 좋은 시간을 보냈다.
나의 무언가로 인해 자존감이 낮아진다면, 여러분의 진가를 알아주는 사람을 가까이하면서
조금 더 좋은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데 집중하세요.
->사람 관계에서 외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성이다.
->나와 남을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다. 모두 저마다 장단점이 있고, 타고난 성격, 재능, 취약점이 다르니까

4. 다름으로 더 아름다워지는 것
'저 사람은 나랑 생각하고 느끼는 것,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이 다르구나' ' 나와 달리 저 사람은 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인정하는 태도를 연습해보세요. 이렇게 관점을 바꾸면 도리어 상대방으로부터 배울 점이 보여요.
서로 다른 것이 당연하고, 서로 같은 경우가 오히려 드물다는 것은 인정하고, 인식->갈등의 빈도가 줄어듬

5. 변명하지 말고 깔끔하게 실수 인정
 1)사과는 빨리 할수록 좋다.
 2)사과는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다.
 3) 가능하면 변명은 더하지 마세요.
실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일, 재빨리, 분명하게, 변명하지 않고 온전히 실수를 인정

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태도를 연습.-> 진실하고 신뢰성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성장

6.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발견하는 마음
남을 칭찬할 수 없는 사람들의 심리학적 분석
1)팽차된 자아의식(나르시시즘)->내가 남보다 낫고 나와 남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2)위축된 자아의식(자기비하)->남을 칭찬하면 자신의 부족함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칭찬하기 더욱 어려운 케이스
*주변 사람들에게 쉽게 판단하거나 비교하는 말은 삼가야한다. 그 사람 자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때문에(청소년에 해당하는듯?)->긍정적인 말이 아니라면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칭찬할 줄 아는 사람은 건강한 자아 의식은 가진 사람이다.->자신이 가치있다고 믿기에 다른 사람의 가치도 인정할 줄 안다.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일수록 자신의 잘못을 쉽게 인정할 줄 알고, 꾸중이나 책망 같은 부정적인 피드백을 잘 받아들일 수 있다. 만약 잘못을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내가 나쁜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긍정적인 면을 찾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 !

7. 순수한 인연이 보물이 되는 순간
8. 불편한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
9. 나는 내가 지킬 거야
10. 빛과 그림자는 늘 함께 있어
11. 내가 만드는 내 인생 지도

치열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보면 어느 순간
‘나 왜 이러고 있지?’ 하면서 허탈한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쯤 겪는 이 감정, 왜 찾아오는 걸까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무기력해지고, 모든 의욕을 잃어버리는 이유를
지나영 교수는 ‘외적동기'와 ‘내적동기'에서 찾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지 않고 끊임없이 가슴뛰며 살아갈 수 있는 비법,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마법의 주문,

한국사회는 이룬 게 많아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

*외적동기- 외부 보상을 얻거나 이루기 위해 하는 것
ex)돈, 승진, 성적 등

외적동기의 폐해
1. 원래 일이 주었던 의미와 가치가 떨어진다.
2. 사람의 우열이 생기고 열등감을 느낀다.
3. 서로 협력하지 않는다.

*내적동기- 행위 자체에서 오는 기쁨이나 보상
ex)사랑, 소속감, 가치, 서비스(기여) 등
외적동기는 오래가지 못한다.

"너는 존재만으로 가치있는 사람이고, 성적 따라 가치 있는 게 아니고
예쁘고 잘생겨서 가치있는게 아니고, 너는 주어진 재능이 많은 사람이야
그걸 지금은 모르겠지만, 너에게 주어진 것으로 이 세상에 기여하며 살면 돼"
라고 가르치는게 내적동기를 키워주는 것.

내적동기 가르치면
1. 주어진 게 많다고 느낀다.
2. 스스로 가치 있다고 여긴다.
3. 세상에 기여할 바를 찾는다. ->결국 성공하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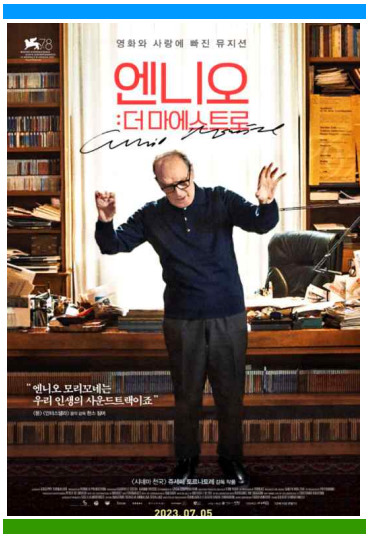
우리는 이기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다,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 태어났다.
"조금씩 성장해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가 답이 아니라, 과정이 답이다.

자신의 장점을 깨워야한다.
명상을 통해 되뇌세요.
나는 잘 하고 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사람에게 꼭 필요한 능력
어려움을 이겨내는 법, 긍정적인 마음 자세
가장한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마음가짐
->긍정적인 마음은 덮어놓고 모든 것이 다 잘될 거라고 믿는 낙천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라도 긍정적인 면이 있음을 잊지 않는 마음가짐이에요.

뇌신경학적 관점에서 긍정적인 마음->감사한 것들을 생각하면

1. 뇌의 시상하부 활성화
2. 세로토닌 증가(행복호르몬->기분 좋아짐, 항우울제)
3. 도파민 분비(즐거운 감정, 동기부여)
시상하부: 수면, 호흡, 체온 같은 대사를 조절하는 부분
이 부분이 활성화되면 대사가 안정되고, 대체로 몸이 평안해짐.
*감사회로 쉽게 활성화되는 방법
->감사 일기 쓰기, 명상과 호흡법 익히기.
*본능적이고 자동적인 부정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가장 간단한 방법



8/30 5차 모임 결과물

"엔니오: 더 마에스트로"
- 음악가 인물의 생애, 작품 창작 과정에 대한 인문학적, 예술적 소양 함양-

⚐ 영화 감상평 공유 및 토론

- 정훈 주무관

: 이 영화는 저에게 엔니오 모리꼬네의 음악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무심코 듣던 유명한 영화 음악이 그의 작곡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제게 또다른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기존의 형식을 과감히 깨고 영화음악에서 여러 기법을 동원한 그는 수많은 비판과 존경하는 스승으로부터도 멸시받는 상황에서 본인의 길을 걸어 음악사에 위대한 유산을 남겨 우리에게 [혁신은 틀을 깨는 접근에서 이루어진다]는 교훈을 줍니다.

저는 이 영화에서 엔니오 모리꼬네가 어떻게 음악에 대한 열정과 재능을 발전시켜왔는지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음악을 통해 자신의 삶과 감정을 표현하고, 자신만의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음악 스타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음악으로 자신의 꿈과 희망을 이루고, 자신의 인생과 예술을 완성했습니다.

그의 죽음에 더이상 그의 새로운 음악을 들을 수 없다는 건 매우 아쉽지만, 그가 남긴 족적을 이 영화를 통해 접하게 되어 좋았고, 그의 인생에 대해 더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 정우식 주무관

: 엔니오의 삶을 영화로 보면서 마치 예술작품을 보는 기분이 들었다. 평소에 자주 접했었던 음악이지만 예전에는 누가 작곡했는지도 모른체 그저 흥

얼거리는 멜로디였지만, 이러한 음악들에 대한 스토리를 듣고 나니 좀 더 음악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 느낌이 들었다. 고흐나 피카소 같은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을 도슨트와 함께 들으면 화가와 작품들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듯이, 이번 영화는 엔니오가 만든 음악들에 대한 도슨트를 듣는 기분이었다. 이번 영화관림을 통해 바쁜 일과 중에서도 예술적 감수성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굉장히 만족을 느낀다.

- 정문권 주무관
: 엔니오: 더 마에스트로는 엔니오 모르꼬네와 수십 년을 함께 한 동료이자 친구인 주세페 토르나토레 감독이 엔니오를 추모하며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이다. 엔니오는 작곡의 세계를 넓힌 사람인 것처럼 보였다. 일상의 소리를 음악에 넣는 건 지금은 굉장히 흔하지만, 당시엔 생소했다고 한다. 당시엔 진정한 예술로 취급받지 못한 영화 음악 작곡가인 엔니오는 이러한 시선을 뒤로 한 채 꾸준히 영화 음악을 만들어 21세기에 태어난 나도 아는 노래 황야의 무법자를 만들어냈다. 틀을 깬다는 건 당시엔 더 어려웠을텐데 끊임없는 도전으로 클래식 음악의 지평을 넓힌 그의 뛰어난 음악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김민식 주무관
: 엔니오: 더 마에스트로를 보고 음악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보통 영화를 감상함에 있어서 영화의 음악보다는 배우의 연기력을 중요하게 보곤 했었는데 영화의 장면 뒤에 깔리는 음악은 영화의 몰입감과 배우의 연기력을 한층 더 돋보이게 만들었다. 특히 시네마천국, 황야의 무법자 등 엔니오의 음악이 깔린 영화들을 본적이 있었는데 영화의 주제와 딱 맞는 음악은 미래에도 두고두고 회자되며 그 음악을 들을 때 그 영화의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다. 과거 상업음악은 순수음악이 이분법 되어 상업음악은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엔니오는 그 시절 정식 음악교육을 받은 엘리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업음악 업종에 종사하며 상업음악의 인식을 바꾼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송다정 주무관
: 영화 엔니오: 더 마에스트로는 음악 감독인 엔니오 모리꼬네의 일생을 그린 내용이다.
영화에서 나오는 엔니오 모리꼬네의 일생을 보면서 영화에 어울리는 음악을 만드는 그의 역량은 천부적인 재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을 느꼈다. 엔

니오는 트럼펫 연주자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음악이론 및 트럼펫 레슨을 배웠고, 학창시절부터 이론과 실기를 익혔다. 기본기를 다지기 위한 노력과 천부적 재능이 결합되어 그의 커리어를 만든 것이다. 이처럼 나 또한 업무적 소양을 쌓기 위해 다양한 연수를 수강하며, 다른 직무의 일들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업무를 처리할 때 여러 경험을 활용하여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는 태도를 함양해야겠다고 느꼈다.

- 손지수 주무관
: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이 영화를 보고 위의 명언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 다만, 이 영화의 주인공인 ’엔니오 모리꼬네’는 음악을 즐기기도 하지만 노력도 하는 천재기에 이 분야에서 탑이 될 수 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 같다. 이 영화를 보면서 나는 어떤 분야에 이렇게 열정적인 적이 있었던가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 주인공만큼 어떤 한 분야에 열정있게 끈기있게 해본 적이 없음을 깨달았을 때 조금 슬퍼졌다. 학창 시절 생활기록부에는 ’양호’라는 단어가 많았고, 뭐든 적당히 하는 데에 익숙해져 있는 거 같아서 나도 열정을 내뿜을 분야를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김혜련 주무관
: 학습동아리로 인해 엔니오:더 마에스트로를 보게 되었다. 영화음악을 생각하면 엔니오 마리꼬네를 생각하긴 했지만 영화로 접하니 그의 작품을 볼 수 있고, 음악을 다큐형식으로 볼 수 있어서 신선했다. 그는 영화음악을 제작할 때 즉석에서 만들었다고 한다. 얼마나 대단한 실력일까? 하지만 처음에는 엔니오의 음악은 매춘부 같다는 등 비판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그들의 편견을 이겨내고 싶었다는 엔니오는 끊임없이 음악으로 도전하며 영화 음악을 하나의 장르화 시킨 장본인이었다. 그런 뚝심과 본인 작품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무엇인가 이루려면 뚝심있게 나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얻기도 한 영화였다. 학습동아리 취지에 맞게 영화에 대한 교양 지식을 얻고 교훈까지 얻은 시간이라 뿌듯한 시간이었다.

- 김솔 주무관
: 엔니오? 처음 듣는 작곡가의 생애 다큐 영화라서 생소했다. 궁금증과 생소함으로 영화를 감상하면서 적잖이 놀랐다. 그가 만든 음악이나 그가 만든

음악이 쓰인 영화는 나에게나 일반 대중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작품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중 카우보이 영화로 유명한 '석양의 무법자'에 나오는 노래는 정말 유명한 노래이며 그 노래를 등자마자 친숙함과 반가움이 동시에 들었고 그가 작곡하였단 사실에 감탄하였다. "띠리리~ 띠~리~리리~~"노래가 영화를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멋진 노래가 아닌가! 엔니오는 천재이면서 노래를 사랑한 노력파 작곡가이다. 그의 재능이 부러우면서도 쉬지 않고 작곡에 열정을 뿜은 그를 보며 그의 노력을 본받고 싶었다. 이번 영화를 통해 그의 생애와 음악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의 음악이 담긴 영화와 그가 작곡한 수많은 노래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다.